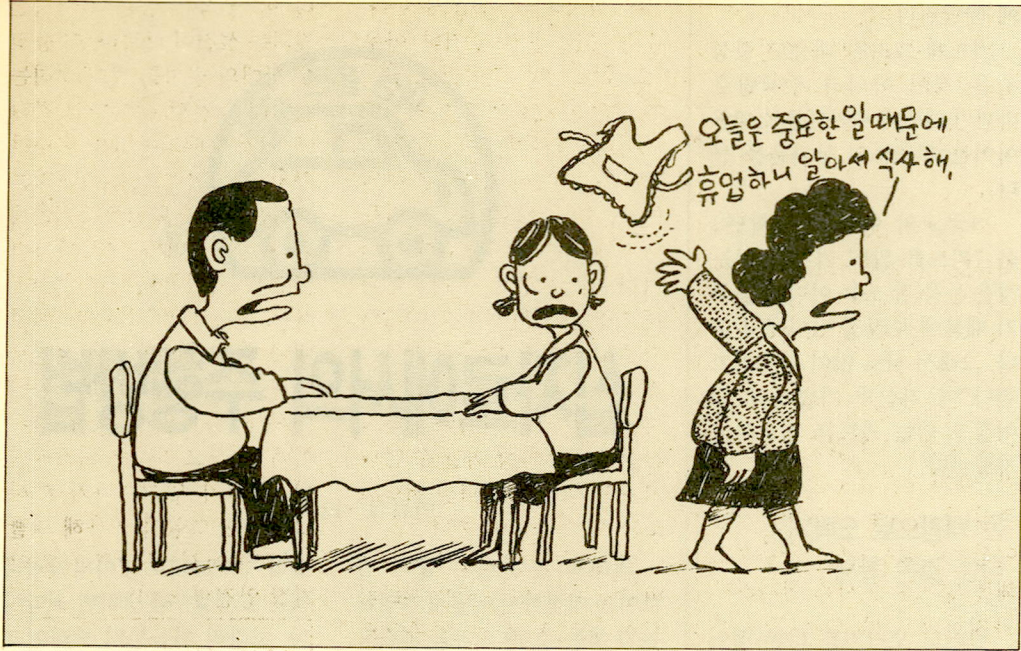


‘주부’ 일에 긍지 갖는 여성 늘어나

여 92.12.4

고학력 주부 사이에 싹튼 변화, 가사노동에 새로운 평가 이루어져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자신의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적어놓았다. 그러나 요즘의 어머니들은 같은 란에 ‘주부’라고 적어 놓는다.

자기의 직업을 ‘주부’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는 것은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함께 고학력주부들 사이에서 싹튼 변화로 보인다.

‘주부’ 직업 스스로 선택

주부의 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대부분의 주부들은 ‘주부’라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말한다. ‘왜 파출부는 직업으로 인정하면서 파출부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주부는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항변이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속에 포함돼 있다.

주부가 하는 ‘쓸고 닦는 일’에 대한 사회적 가치부여를 주부 스스로가 이뤄가야 한다는

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는 나만의 전문직업을 갖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도 안정된 집에서 아름다운 홈스페이스를 입은 채 자유시간을 만끽하고 싶다는 모순된 욕구를 주부 스스로가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후 4년간을 직장생활하다가 가사일에 전념하기 시작, 지금은 ‘누구나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살림 전문가’가 되었다고 자부하는 이정선 씨(39. 송파구 가락동)는 “나의 자부심은 언제든 사회활동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고 분석해 보인다. 이 씨의 경우 일종의 탈출구를 마련해 놓고 마련된 자부심이긴 하지만 ‘주부 일’에 대한 주부 스스로의 새로운 가치평가라는 일면을 지닌 데 의의가 있다.

반면 박경희 씨(43. 동대문구 답십리동)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전제의 자부심은 가사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냐?”며 “친구들 중 사회생활에 성공한 사람이 더러 있지만 그들 앞에서 나는 한번도 위축된 적이 없다”고 말한다. 박 씨는 “주부 일이라는 것이 여성에게 주어진 천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남편과 나의 역할이 바뀐 것이고, 남편이 10년 경력의 직장인이자 나도 10년 경력의 전문 영역을 확보한 직장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부일 자격증 주어진다면 어머니 10개도 넘을 것”

결혼 2년째인 김숙자 씨(26. 인천시 북구 부평6동)는 “우리사회가 주부역할에 대해 비전문직이라는 측면에서 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부 스스로가 만든 함정”이라고 지적한다. 김 씨에 따르면 “역할 분담에 따른 편견만 제거하면 주부직은 고도의 난이도를 요하는 직업에 속한다”는 것이다. 밥할 줄도 빨래를 삶 줄도, 반찬을 만들 줄도 모르고 결혼을 해서 지금 2년이 넘어진 상태지만 여전히 살림일에 서툰 김 씨는 “남편도 살림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 채 결혼을 했다. 핵가족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자신의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적어 놓았다. 그러나 요즘의 어머니들은 같은 란에 ‘주부’라고 적어 놓는다.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함께 고학력주부들 사이에서 싹튼 변화로 보인다.

시대를 거친 여성들 대부분이 아마 나와 같은 상황일 것이다. 남편에게 더러 가사를 맡겨 보며 살림을 같이 하기도 하는데 가사일에 서툰 남편은 ‘만약 주부일에 대해 전문자격증이 주어진다면 우리 어머니들은 자격증을 가져도 10개는 넘게 가진 양반들’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며 “문제는 생활속에서 주부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어떻게 벗어나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부의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연세대 사회학과 조혜정 교수는 주부문화를 진단하는 책 〈주부, 그 막힘과 트임〉을 통해 “전문화된 사회에서 주부도 전문적인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특수한 사람(아이, 남편)에 맞추는 일을 하다보니 그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활용되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극도의 전문성 위주로 짜여진 현사회체제를 바꾸어가지 않으면 결국 주부가 설 자리는 늘 불안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 교수는 그 작은 실천방법으로 “주부가 주체적으로 어머니 역할을 방해하는 일을 깨뜨려나가야 한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주부가 학부모 모임에 나가려할 때, 나는 오늘 이러한 중요한 일로 휴업하니

식구들은 알아서 식사를 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만 자기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들의 모든 자질구레한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일상생활에 파묻히게 되고, 스스로 돕지 못하게 된다는 것.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이 상당수다. 주부 일에 대한 새로운 가치평가와 개념

정리가 내려진다면 주부문화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현직 주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때다.

긴장감 없이 나른하게 퍼져 있는 주부상과 수퍼우먼으로 불리는 맹렬직업여성이라는 두 모델에 이렇듯 자기 스스로 주부일에 전문성을 부여하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제3의 주부상이 확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명순 기자〉